



2대리구 중방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부활 제2주일 공,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22. 04. 24. (다해) 제2318호

제1독서 사도 5,12-16 **화답송**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묵시 1,9-11L.12-13.17-19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사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자비에 참여하기

월명성모의집 원장 | 손현기 모세 신부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까지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부활은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다.”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밝혀 주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밝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그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자비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 입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토마스를 위해서 재차 나타나셨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확실히 믿음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은 비로소 기쁨과 평화와 믿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들에게 주님이셨음’을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들을 부르실 때나, 자리다툼을 하던 때나,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나, 언제나 자신들을 위해서 같은 주님으로서 자비로운 하느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과 평화와 믿음은 이제 비로소 하느님의 애끓는 자비의 마음으로까지 가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의 부활은 어제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임을 돌아보게 합니다. 숨 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것임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참여하기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곧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비를 입은 우리도 생명을 돌보는 책임과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위험에 놓은 생명들이 많습니다. 전쟁의 위험, 안전의 위험, 코로나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등 우리 손길이 닿는 곳에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음하는 온갖 피조물도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비는 먼저 아픔과 슬픔과 그들의 신음에 공감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믿지 못하는 토마스 사도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을 비우고 먼저 아파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어봅시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슬픔과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듣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입고, 모든 생명을 돌보는 하느님의 자비에 잘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필요**

사랑받은 기억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지의집 사무국장 | 김은주 가브리엘라

수지의집은 사회복지법인 서정길대주교재단 산하의 생활시설로 저마다 뚜렷한 개성을 지닌 청소년들이 따뜻한 보호와 관심, 교육과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진학, 귀가, 자립 등을 준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1998년 개소하여 24년째 운영하는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이 수지의집을 거쳐 갔습니다. 짧게는 며칠에서부터 길게는 6-8년까지 생활하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여 자립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여느 집이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듯이 수지의집 또한 그렇습니다. 입소한 청소년들은 저마다 살아오면서 겪었던 상처 때문에 삶에 대한 불안,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나 비행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개구리처럼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나 사건으로 직원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일탈을 꿈꾸며 가출을 감행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을 견디며 살아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대견합니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곳 청소년에게는 특히



『성모마리아』 수지의집 청소년 작품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결핍되었던 사랑과 애정이 충족되어야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수지의집 상담원들은 매일 그들의 마음 속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함께 머리를 맞대며 갈등을 중재하고, 깨어진 인간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우며 올바른 인성과 성실한 삶의 태도를 지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지도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가 많은데, 결국 돌아야 할 곳은 집(원가정)이기에 이들의 사이를 다시 이어주기 위한 부모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머니의 폭력으로 잦은 가출을 하던 아이가 입소하였습니다. 결석이 많아 자칫 중학교를 졸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아이에게 더 관심을 두고 챙겼지만 아이는 시설에서도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성체조배실에서 평평 울었습니다. 하루만 더 결석하면 졸업을 못할 위기에 처한 그날, 기적처럼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담하며 저는 아이가 없어졌을 때 걱정과 상심으로 울었던 그 진심을 부모와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귀가한 이후에도 아이의 문제가 바로 사라지진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며 희생을 감내하려 노력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를 느껴서인지 아이는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지의집을 퇴소한 친구들은 “수지의집 밥이 그리워요. 거기 있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수지의집을 떠나도 이곳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 사랑받고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그 기억들로 힘을 얻고 선생님들의 잔소리가 삶의 길잡이가 되어 준다면 더없이 기쁠 것입니다.

끝으로 비공개 시설이라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또 먼 중국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교우님, 후원자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문**

◀**밀알화**▶는 대구대교구 공식 사회복지 후원회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노숙인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복지 사업과 교구 소속 10개 법인의 100여 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기 후원자 가입 문의:** 053)422-3411(내선1)

아브라함 소명 이야기 창세 12장~17장

"약속의 보증, 계약"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 반유닛 수녀

하느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고(창세 12,1-9) 하란을 떠난 아브람은 노년의 나이에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습니다.(창세 15,6)

아브람의 믿음을 보신 하느님은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계약’으로 보장하십니다.(창세 15장;17장) 계약이란, 하느님과 계약자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결정적인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에 관한 이야기는 15장에서 17장까지 두 번 나타나는데 계약 전승이 두 갈래로 전수되었기 때문이며, 서로 다른 관점에서 계약의 의미를 전해 줍니다. 계약에 사용된 동물을 두 조각으로 자르는 행위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창세 15장), 그 계약은 하느님의 영원한 선물입니다.(창세 17,7) 하느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시며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곧 ‘신앙인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창세 17,5)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하여 세례명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은 그의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사명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계약에서 무지개가 계약의 표지가 되었듯이(창세 9,16)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계약의 표징은 할례입니다.(창세 17,11) 할례는 원시 민족이 수행했던 혼인입문식의 하나였지만 이제 이스라엘인에게 선민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 씨종들이 한 집에서 동화되어 생활하였기 때문에 함께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창세 17,12) 이는 계약의 특권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예언자들은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임을 강조합니다.(참조 예레 31,33; 에제 36,26)

이렇게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과 약속 위반에 따르는 형벌을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를 수락하며 계약 백성의 조상이라는 특권과 의무를 동시에 짊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로 완성되며,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필문**

말씀 맞히기 Q & A

1.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서 겪게 될 종살이에 대해 알려 주시는데 그 기간은 몇 년 동안입니까? (창세 15장)
2.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창세 17장)
3.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창세 17장)

※ 위 문제의 정답을 적어(자유 양식) 4월 29일(금)까지 우편(도착분)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3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4196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천주교대구대교구청 문화홍보국 대구주보 담당자 앞 / 문의: 250-3048

※ 정답은 다음주(5월 1일 부활 제3주일, 생명주일) 주보에 게재됩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1년

첫 사목서한 전달과 부주교 임명

7월 23일 일요일

베르모렐 신부가 편지를 보내 최근의 폭우로 그의 성당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7월 25일 화요일

나는 로베르 신부의 출발에 관해, 또한 경찰서에 해야 할 신고에 관해 몇 가지 정보를 알리는 회람 제3호를 발송했다. 이 회람과 함께 교구 최초의 카탈로그도 발송되었다.

7월 28일 금요일

1904년부터 성무집행이 정지된 마라발(Maraval, 徐若瑟) 신부는 그를 나의 교구에 받아주도록 청을 했었다. 뮈텔 주교에게 통지를 하는 한편, 이곳에 와서 나와 이야기하자고 했었다. 그는 오늘 저녁에 도착했다. 그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제물포(濟物浦)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데, 바로 그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성무정지를 받게 된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7월 29일 토요일

마라발 신부는 여기서 만족한 것 같다. 사실 모두가 그에게 아주 친절했고, 그도 모두에게 친절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문제를 조금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7월 30일 일요일

마라발 신부가 되돌아갔다. 그는 다시 와서 겨울에 피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약속을 지킨다면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 요즈음 뮈텔 주교와의 교신(交信)이 아주 활발했다. 왜냐하면 마라발 신부와의 교섭에 관해 일일이 뮈텔 주교에게 알리려 했기 때문이다. 카넬 신부가 오늘 저녁에 왔다.

8월 3일 목요일

카넬 신부와 줄리앙 신부가 떠났다. 나는 오늘 최초의 사목서한을 교우들에게 보냈다.

8월 5일 토요일

나는 베르모렐(Vermorel, 張若瑟) 신부를 부주교로 임명하고, 선교사들의 권한을 공포하는 첫 번째 회람(回覽)을 발송했다. 건강이 나빠서 두 달 전에 서울로 가야 했던 로베르 신부는 몸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홍콩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8월 6일 일요일

대구의 신문(大邱新聞)은 가톨릭 주교에 대한 총독의 태도에 관해 길게 논평을 했다.

55. 사랑의 결실 ⑦

우리는 자녀들에게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하는 방법을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확대된 가정은 많은 사랑으로 미혼모, 부모가 없는 아이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많은 애정과 친밀함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 중독에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 미혼자들, 헤어졌거나 사별하여 홀로된 이들,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 노약자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심지어 삶의 패배를 경험한 이들”까지도 감싸주어야 합니다. 부부 결합은 부부의 타당한 자율성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부부 서로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비판을 삼가고, 서로를 보살피고 소중히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기쁨』 194-198항)

대구대교구 군중후원회

창립 50주년 피정 및 감사미사

5월 5일(목) 13:00 ~ 17:00 주교좌 범어대성당 대성전

피정 | 13:00, 강사: 김웅열(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미사 | 15:00, 주례: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 모든 군중후원회 회원들과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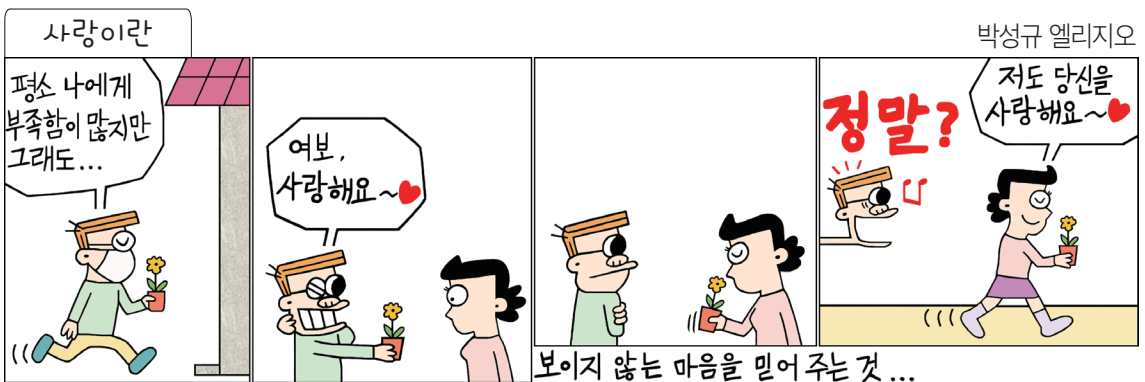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줍깅/플로깅(Plogging,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활동) 실천해보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67호 정답

1. 마태오와 루카, 타마르, 라합, 롯, 우리야의 아내, 마리아 2. ① ④
3. 7,12,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4. ①



미사 안내

1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25일(월) 11:00 계산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4월 26일(화) 14:00 산암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25일(월) 11:00 범어성당		4월 26일(화) 19:30 다사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25일(월) 11:00 도량성당		4월 27일(수) 10:00 죽도성당
오순절평화의마를 후원회미사	4월 25일(월) 11:00 수성성당		4월 27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5.1(일) 10:00
장소: 서울본부(동소문로)
대상: 만 19~35세
문의: korvocation@columban.or.kr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피정: 연중 환경
수난 24일 기도 참여자 모임:
4.27(수) 15:00 미사
문의: (054)382-0091

바틀로센터 첫영성체 가족 피정

일자: 5.7(1차) / 5.8(2차) / 5.14(3차)
5.21(4차) / 5.22(5차) / 6.6(6차)
신청: 각 차수 선착순 (본당별)
문의: 783-9817 / (010)6680-1876

성모님과 함께하는 치유 대피정

주제: 성모님 품에서 값없이 먹고 자고,
원없이 기도하자
날짜: 5.13~15 / 5.20~22 / 5.27~29
장소: 성모솔숲마을(피정비 없음)

인원: 50명씩 / 문의: (010)5613-0166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

주제: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 마감: 6.2(목)
일자: 6.10(금)~12(일), 2박 3일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대구시 사수동)
문의: 한국CLC, (02)333-9898

교구 외 | 기타 알림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
(만18세이상, 학력제한없음)
내용: 신학, 성서 26과목을 통신으로 공부
접수: 4.30(토)까지 우편접수 가능
문의: (02)745-8339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할인: 성직자·수도자·장애인50%(전화필수)
문의: (031)360-7635 / (010)7470-796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4.25(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의실
문의: (010)2509-9748

바뇌의 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4.28(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대안성당

주일 성령 묵상회(주일 3회 과정)

일자: 5.8 / 5.15 / 5.22 (매주 주일)
시간: 9:00~18:30 / 비용: 12만원
장소: 월막피정의집, (010)9045-0191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8차: 5.13(금)~15(일)
389차: 7.22(금)~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렌리교),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옥(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월간 빛 정기구독
교구에서 발행하는 종합월간지 빛 정기구독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나보세요!
▶ 본당 구독: 정가 1,500원, 1년 18,000원
▶ 우편 구독: 정가 1,800원, 1년 21,600원
(우편료 300원 포함)
▶ 구독 문의: (053)250-3158, 252-5392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증요양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출추게 하라!**
다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무릎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_루카
T. 555-5520 죽전역 5번 출구

그루 행정사
법인설립, 행정심판
토지보상, 민원대행
010-3534-1371
대표 이 경 배(요셉)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약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구 313-2484

방역소독(24시 긴급출동)
청소, 에어컨·물탱크청소, 경비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http://www.hbdaegu.co.kr>
전순례(비비안나) 신원섭(바오로)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재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크림·로션·스킨·샴푸·금잔크림·세안비누
특정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502-700-1140
010-5117-1160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정식(보니파시오) 몬시뇰
2010년 4월 27일

교구 | 대리구 알림

2022년도 성소주일 안내

일시: 5.8(일) 13:00~16:00(15:00 미사)
장소: 남산동 신학교 성 김대건 기념관
대상: 예신 등록생
미사는 부모님 참석 가능합니다.
문의: 성소국, 250-3071

노년을 위한 토빛피정

일자: 5.11(수)~5.12(목)
장소: 한티피정의집(교구청 차량 이용가능) /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4.28(목) / 신청비: 6만 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교구청 사제관 주방 직원 채용

자격: 55세 이상 신자
서류: 자필이력서, 교적증명서
마감: 4.28(목) 15:00
제출·문의: 관리과, (010)4926-3224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진(프란치스코), 윤대현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학산셋별학교 교육생 모집

기간: 2022년 4~5월
내용: 검정고시 시험대비 교육지원
대상: 중·고졸 검정고시 학력취득 희망자
문의: 학산종합사회복지관, 634-7230

칠곡가톨릭병원 전문의 초빙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전문의를 초빙합니다.
초빙과목: 내과, 외과(유방·갑상선)
문의: 320-2120 / (010)7372-0076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연말정산문의: 650-3529

전인병원 코로나 후유증 회복 클리닉

전인병원은 효과적인 후유증 회복을 위해
의과, 한의과 통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 1688-7667

2022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5.2(월)~13(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1(일반), 3508(교육)
660-5253~4(특수)
<http://www.cu.ac.kr>

남대영기념관 수지에니어그램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5.14(토) 10:00~17:00
문의: 정이사야 수녀, (010)8682-4237

38회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국가: 캐나다, 필리핀
과정: 대학생 및 가족연수, 영주권
출국일: 4주 이상(개별 선택)
설명회: 5.14(토) 14:00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천주성삼요양원 조리원 모집

모집인원: 1명
학력, 나이, 자격 제한 없음 / 월급직
근무시간: 6:00~15:00 / 10:00~19:00
위치: 신매역 5번출구 천주성삼병원 뒤편
문의: 795-9004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매동)
<http://www.sungsam21.com>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요 안 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능사
최준우 (미카엘)

봉덕점 · 서문시장점 010-6481-8848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망막질환

대표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 외래교수)

안과 전문의 서재신 (베드로) · 장주현 (비바티나나)
수성구보건소 맞은편 대동M타워 4~6층

☎ 053) 626-8881~5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아오스딩), 배상근(베드로), 김원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배상영(미카엘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T. 425-5919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이시아요양병원

대구시 동구 파계로6길 16(지모동)
(파군재 삼거리 좌회전 100m)

(053)983-7700

병 원 장 이 동 구 (마티아)

곽재혁신경과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안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 전문의/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번더 맞은편)

☎ 053)942-8822

국내 국제 24년 전통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TV 운영
대구신로 결혼 칼럼니스트
MBC 외 방송 다수 출연

수산나 이현숙 박사의 결혼하는 방법 책 출간
M. 010.6571.3385